

## 금호타이어, 르노삼성에 EV용 타이어 공급

금호타이어(대표 김창규)는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르노삼성자동차에 전기자동차 전용 타이어인 와트런(Watrun)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4월10일 발표했다.



금호타이어는 약 2년 동안의 연구개발을 거쳐 100% 순수 전기자동차 <SM3 Z.E>에 규격 205/55R16을 단독으로 공급하게 됐다.

SM3 Z.E는 국내 최초로 양산·판매에 들어가는 준중형급 전기자동차이며, 운행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로 알려졌다.

1회 충전만으로 123km(신연비 기준)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, 가속하거나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

전기자동차 전용 타이어인 와트런은 낮은 회전저항, 저소음, 내마모성, 높은 구동력 등을 갖추고 있다고 금호타이어는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3/04/10>